'핵심신도' 양성 제언

교육 · 커뮤니티 활성화로 신도 정예화


불교대학을 수강하고 있는 불자들. 핵심신도로 나아가는 기본은 '교육'이다.

불교를 포교하는 목적은 부처님 법을 통해 중생을 교화하고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종교로서 종단의 발전을 위해 적정 수의 신도 수를 유지 ·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한 포교 목적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나아가 기존 신도들의 '충성도'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문제다.

하지만, 한국불교의 고질적 문제점 중 하나가 재가불자들의 소속감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한국리서치가 2022년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종교활동의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 불자의 33%만이 "내 삶 속에서 종교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개신교는 66%, 가톨릭은 55%에 달했다.

또한 '종교가 삶에 영향을 준다'을 묻는 질문에는 불자의 42%만이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반면 개신교인들은 72%, 천주교인은 62%가 자신의 삶에 종교가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불교를 신앙하면서도 삶에서의 영향력과 중요도가 타종교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은 불자로서의 정체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신도 조직의 응집력 약화와 신도 이탈로 이어질 수 있어 '집토끼 지키기'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교육화되고 조직화된 '핵심신도'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종단에 대한 소속감을 높여야 하고, 이는 교육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교육의 목적은 특정한 인간상으로 '변화'시키고, 조직의 구성원으로 '소속'해 그 조직에서 부여하는 사명을 '실천'하도록 만드는 데 있기 때문이다.

재가불자들 종단 소속감 미비
불교대학 졸업 후 재교육 전무
수행 결합 장기 프로그램 필요
사찰 소모임 등 활동 영역 구축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핵심신도 양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 연수 등이 주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일본불교단체인 SGI의 경우 매주 공부 자료를 제작 · 배포해 신도들 스스로 공부하고 모임 안에서 토론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정기 교육은 보상감과 단체 소속감을 형성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화된 신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펼쳐주는 것도 중요하다. 핵심신도들에게 지위를 부여해 활동하도록 만드는 종단적인 종책이 필요하다"면서 "사찰 신도들도 관심 영역이 다양하다. 관심사나 취미 등을 주제로 사찰 내 커뮤니티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신도조직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장기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제언했다. 조 교수는 "1990년대 사찰 불교대학이 신도교육과 조직화에 핵심적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조금은 퇴조의 길을 가고 있다"며 "불교대학 1~2년 과정을 마치면 끝난 교육 시스템이다 보니 장기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불교학 교수를 양성할 것도 아닌데, 너무 어렵기만 한 교육 과정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제는 기본교육 후 신행과 결합된 10~20년 장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교육 내용도 부처님 생애를 중심으로 기본 교리를 철저하게 이해시키는 쪽으로 가야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람직한 신앙상을 가진 불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그래야 '핵심신도'를 양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명망 있는 수행지도자 배출 먼저"

'수행 활성화' 제언

부처님 법을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과제, 수행이다. 교리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재미있는 문화 체험을 한다고 해도 개인의 정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의미가 퇴색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지난 1월 제37대 집행부 신년기자회견서 핵심 종책 가운데 하나로 '불교의 사회적 소통강화'를 꼽았다. 이를 위한 마중물이 바로 명상센터 건립. 현재는 서울 용산에 부지를 확보하고, 센터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단계다. 최근에는 조계종 명상 프로그램 기획위원회를 구성해 2026년까지 종단이 인증한 명상 과정을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수행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10년 전 서울 강남구와 부산 해운대구에 참불선원을 개원하고 재가불자들의 수행을 지도하고 있는 문경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선원장 각산 스님은 '수행력 갖춘 지도자 배출'을 1순위 과제로 제시했다.

스님은 "유발 하라리 한 사람의 영향으로 그의 스승이 세운 인도 고엔카센터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빌게이츠도 명상을 시작했다"며 "공신력을 갖춘 명망가가 대중에게 수행의 가치를 알린 하나의 사례"라고 평가했다.

각산 스님은 이런 수행지도자 배출과 더불어 참선을 주제로 한 템플스테이 운영이 수행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사찰에서도 연령 등 계층별로 참가자를 구분해 수행을 지도하고, 점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스님은 "일반인들이 집에서 매일 적어도 10~30분 스스로 선명상을 할 수 있도록 불교계가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여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인 공(空)과 중도, 사성제, 팔정도, 삼법인, 연기 등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발 하라리 한 명의 영향으로
印 고엔카센터에 사람들 몰려
수행공동체 자체로 포교 도움
'산속 禪' 아닌 '삶 중의 명상'

참선과 불교명상이 일반인에게 '마음챙김'으로 더 익숙하지만 수행법의 효과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학자들 역시 불교계가 나아갈 방향으로 '명상의 확대'를 꼽는다.

한국문화융합학회가 펴내는 〈문화와융합〉 제43권 4호(2021)에 실린 논문 '코로나 시대의 포교와 불교 명상의 활성화 방안'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결론을 내놓는다. 논문을 쓴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 김미영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는 "붓다가 가르친 의미와 목적을 실현하려는 의지로, 수행문화와 이를 전파할 수 있는 콘텐츠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세계적인 명상센터 플럼 빌리지와 샌프란시스코 선센터 등을 예시로 들었다. 명상할 때 높은 쿠션을 쓰거나 탑돌이를 변형해 걷기명상을 개발하는 등 불교인만의 종교가 아닌 '마음 다스리기'로의 광범위한 불교가 돼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종교인이나 무교인 모두 살아가면서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각각 근기에 맞는 수행법을 개발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 연구교수는 "수행공동체에서 스님과 일반인이 함께 먹고, 걷고, 일하고, 휴식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정신은 그 자체로 포교가 될 것"이라며 "산 중의 선(禪)이 아닌 삶 중의 명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스님과 참선하는 불자들. 불자들의 수행 활성화는 제대로 된 자도자의 안내가 뒷받침돼야 한다.



한국불교태고종
청 련 사

조 실 해 경
원 로 도 암, 지 홍
회 주 상 진
주지 직무대행(재무) 심 곡
총무(원주) 벽 산
교 무 거 진
서 무 효 능
교 무 보 효 진
대 중 일 허, 일 겸
일 벽, 일 월

재단법인
천년고찰 청련사

이사장 상진
이 사 해경, 심곡
벽산, 거진
효능
최종남, 이종수
감 사 최인귀
법무실장 홍창수

청련사 두도엔지니어링
(종합건설회사)

건설본부장 김호영
상무이사 김유영

청련사 극락원
(추모관)

상 무 장진우
과 장 송 원

종무소 직원

총무과장 정태우(일소)
업무과장 이진미(소봉)
업무계장 최진호(무착)
경리주임 성진희(소담)

청련사 불교문화연구소

소 장 곽승훈(동광)
실 장 인용민(법정)
홍보팀장 유재걸

현장관리직원

소 장 허대형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69 전화 : 031)836-2439, 1080 팩스 : 031)836-1081 홈페이지 : http://www.bluelotus-temple.co.kr